

(주)주원산오리 본사에 파라과이 주한 대사 내방



파라과이 주한 대사와 파라과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원산오리를 대한민국대표 업체로 선정하여 지난 2월 20일 주원산오리 본사를 방문했다. 주원산오리의 차별화된 오리 사육 기법과 선진화된 공장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파라과이 농가에 도입하고자 견학차 방문한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그들은 사육 농가와 공장의 철저한 방역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주)주원산오리, 급식전용제품 출시

주원산오리에서 신학기를 맞아 급식전용제품을 출시했다. 주원산오리의 급식전용제품은 100% 국내산 1등급 이상의 오리를 원료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생각하는 학교 급식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주원산오리는 영국의 최고 품종을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사육하며 특허(특허 제10-0812667호)받은 사료를 먹여 키워 육질의 맛과 풍미가 뛰어난 것은 물론, 연육과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식감이 부드럽다. 또 자체 면역력이 높아 2008년 AI 등 축산업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주)주원산오리, 친환경브랜드 '올본'에 등록

주원산오리가 서울시 농수산물센터에서 운영하는 '올본'에 정식 등록되었다. 이로써 4월부터 학교 영양사들이 손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원산오리를 구매할 수 있다. (올본 : 서울시 초중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직접 판매하는 친환경 브랜드)

(주)주원산오리, 초·중학교에 장학금 1000만원 지급



(주)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는 지난 3월 18일 이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월·금구·상신초등학교와 이월중학교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주원산오리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올해로 3년째 장학금을 지급했다.

(주)태진, R&D 관련분야에 집중 투자



가금자동화 생산설비 라인의 선두기업인 (주)태진(김선유 대표)이 최근 R&D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우선, 김선유 대표의 경영철학 중 하나인 '신기술개발실천'에 따라 작년 11월에 완공한 건물 5개층 중 4개층을 R&D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1팀, 연구2팀, 연구3팀으로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 작년 말에 R&D 관련분야 연구인력을 충원하고, 올해 2월초에는 농협 중앙회에서 30여 년 근무한 경력이 있고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임철교 씨를 전무로 영입하는 등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3년에 걸쳐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 자동화 설비 5종도 올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해외(중동지역 외 20개국) 및 국내 거래처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다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주)태진은 연초에 사내 탁구장, 카페, 휴게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농협사료, 국내최초 국제유기인증 획득

안성공장, 월1600t 생산... 유기축산 활성화 '신호탄'

경기 안성의 농협사료 유기사료공장이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으로부터 국제 유기인증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농협사료는 국내 유기 축산농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국산 유기사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기축산 농가들은 국산 유기사료가 없어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해 왔다. 농협사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월 1600t의 생산능력을 갖춘 유기사료공장을 건립해 자체적인 유기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OCP)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원료의 구매에서부터 입고·가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위생관리와 비유기물질 혼입방지 시스템을 구축, 이번에 IFOAM으로부터 유기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2013. 03. 15